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세령¹, 이영조^{2*}

¹동덕여자대학교 보건향장학과 박사수료, ²경인여자대학교 강사

The Effect of the Fun Factors of Beauty Workers on the Attitude of Job and Self-Efficacy

Se-Ryung Kang¹, Young-Jo Lee^{2*}

¹Student, Dept. of Health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²Lecturer, Dept. of Hair Beauty Course, Kyung 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뷰티종사자 32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규명하기 위한 자료처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각 요인별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재미요인, 직무열의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변인들 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쳤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무열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뷰티종사자, 재미요인, 직무열의, 자기효능감, 자기만족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eauty workers' fun factors on job enthusiasm and self-efficac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24 beauty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s. The data processing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requency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and analyze the factors,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fun factor, job enthusiasm and self-efficacy was used. Multi-regress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variables, an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such a research procedure. First, the fun factor of beauty workers was crazy about job enthusiasm. Second, the fun factor of beauty workers influenced self-efficacy, and third, job enthusiasm had an effect on self-efficacy.

Key Words : Beauty worker, Fun factors, Job Engagement, Self-efficacy, Self-satisfaction

1. 서론

현대사회는 웰빙혁명의 시대이다. 바쁜 사회활동 속에서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에게 몰입하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미용서비스종사자는 예술적 가치와 창의성이 고객의 미적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이고 예술

적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완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미용분야에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 네일 아트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예술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고객의 개성을 잘 표현해주는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고부가가치의 경영성과를 기대하며 미용종사자들도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낀다[1]. 미용서비스산업은 생산과 동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 Lee(leewha88@naver.com)

Received August 16,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25,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므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적절한 외향을 갖추어야 한다[2]. 과거 우리나라의 뷰티종사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및 부정적인 시각과 노동집약적이며, 생계유지를 위한 산업 이었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뷰티산업은 각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세분화하면서 지속적인 신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다[3]. 그러므로 뷰티종사자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 및 가치를 찾게 만들어주었다.

Kim은 개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극대화하며 삶의 질의 향상과 재미요인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4]. 삶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면 힘든 경험이나 도전의식을 얻게 되고 스트레스감소, 심리적인 안정감이 충만하게 되며 어떠한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자신감은 성취감과 사회적인 안정 및 만남을 통한 친목을 도모하게 되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며 목표달성을 위한 재미요인은 높아질 것이다 [5]. 재미(enjoyment)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포함한 몸과 마음의 즐거움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준비상태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일 것이고 즐거움, 기쁨의 긍정적 감정의 반응으로 정의 되고 있다. 재미요인은 중에 관계적 재미는 개인과 상호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는 동기적 속성을 지니며, 정서적 재미는 공감과 친밀감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인지적 재미는 긍정적사고와 몰입으로 조직 내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일지라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당장 다른 일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뷰티종사자들도 일과 여가를 통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재미일 것이고, 감정은 정서적인 즐거움과 만족, 유쾌함, 기쁨을 동반한다[7].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직장생활의 만족감,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 및 업무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직 내 원만한 인간관계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무생활에 긍정적인 사람은 외부사회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속한 사회를 호의적으로 말하며 대중에게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유발로 보고되고 있다[8].

직무열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태도와 헌신의정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조직 성과와 유효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만족감 및 자신감을 높일 것이다[9]. 특히 뷰티종사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직무에 대한 열의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Hong은 미용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에 따른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감의 감소로 인한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10]. 그러므로 뷰티종사자는 직업으로 인한 기쁨과 직무열의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업무처리능력의 만족감이 높아진다. Kim은 학생들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어야 능동적 학습태도와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11]. Jung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대학생들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Im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향상시키며, 부정적인 직무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따라서 조직성공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과 업무당사자간의 능력향상으로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간주하게 만든다[13]. Hur & Kim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삶의 질 또한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14]. 이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고 자기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지만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식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객접점에 있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미를 유발해야 조직몰입과 직무과정에서 몰입 및 열의를 가질 수 있다[15]. 그러나 뷰티 영역에서는 이러한 직무효율성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뷰티서비스 연구영역에는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종사자들의 직업특성에 따른 재미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직무열의를 높이고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및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뷰

티종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6월15일부터 2020년7월 15일 까지 일개월간 인터넷 설문조사하였고 3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One-way)ANOVA, 사후검증(Scheffe's)을 처리하였으며, 재미요인과 직무열의 자기효능감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2.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표본은 뷰티 서비스종하고 있는 총 324명이다. 연령은 20대 136명(42.0%), 30대 55명(17%), 40대 72명(22.2%), 50대 61명(18.8%)으로 조사되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헤어미용177명(54.6%), 피부미용68명(21%), 메이크업41명(12.7%), 네일아트38명(11.7%)로 조사되어 헤어미용이 전공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보조급 80명(24.7%), 일반급 77명(23.8%), 관리자급 40명(12.3%), 원장급 127명(39.2%)으로 원장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1년미만 80명(24.7%), 1년이상 5년미만 77명(23.8%), 5년이상 10년미만 51명(15.7%), 10년이상 15년미만 18명(5.6%), 15년이상 98명(30.2%)로 1년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Frequency (N)	Percentage (%)
Age (year)	20s	136	42.0
	30s	55	17
	40s	72	22.2
	50s or older	61	18.8
Major	Hair Beauty	177	54.6
	Skin Beauty	68	21
	Make up	41	12.7
	Nail art	38	11.7
position	Assistant	80	24.7
	Hair stylist	77	23.8
	Supervisor	40	12.3
	Manger	127	39.2
Service life	not more than 1 years	80	24.7
	1-5 years	77	23.8
	5-10 years	51	15.7
	10- 15 years	18	5.6
	more than 15 years	98	30.2
	Total	324	100.0

3. 분석결과

3.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재미요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로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회전방법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적용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MO (kaiser-Meyer-Olkin) 지수를 산출하였다.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을 찾지 못하여 스포츠연구의 재미요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6]. 제시한 문항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Table 2. Fun factors

Factor	Component			
	1	2	3	communality
Question5	.803	.090	.116	.667
Question3	.730	.196	.143	.591
Question2	.700	.153	.177	.545
Question4	.688	.317	-.094	.583
Question1	.562	.122	.271	.404
Question8	.229	.712	.105	.570
Question16	.046*	.708	.023	.504
Question7	.169	.702	.108	.533
Question13	.253	.612	.062	.442
Question11	.070	.100	.812	.674
Question12	.258	-.081	.708	.574
Question9	.099	.398	.616	.548
Eigenvalue	3.976	1.389	1.270	
Variance (%)	33.129	11.577	10.580	
Cumulative (%)	33.129	44.707	55.286	
Cronbach's α	.778	.692	.609	
Total Cronbach's α	.806			
KMO = .824, $\chi^2=965.483$, $p < .001$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재미요인 12문항은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16문항 중 6, 10, 14, 15번 문항은 요인 적재치.05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한 후 최종 12문항이 적용되었다. KMO 지수는 .824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chi^2=965.483$ $p < .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55.286%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3개의 요인은 즐거움, 사교, 성취감으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즐거움 .778, 사교 .692, 성취감 .609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06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3.2 직무 열의

Table 3은 직무열의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로 측정도구에 사용한 문항은 Kim이 제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17]. 이중 4문항은 요인적재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4문항을 제거하고 8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KMO 지수는 .847로 표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chi^2=811.153$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59.110%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은 몰두, 헌신으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몰두 .763, 헌신 .747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24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3. Job Engagement

Factor	Component			
	1	2	communality	
Concentration	Question2	.823	.113	.691
	Question10	.742	.273	.626
	Question3	.675	.184	.489
	Question11	.650	.407	.588
single devotion	Question6	.125	.852	.741
	Question7	.187	.753	.602
	Question8	.273	.652	.500
	Question5	.413	.567	.492
	Eigenvalue	3.710	1.019	
Variance (%)	46.369	12.740		
Cumulative (%)	46.369	59.110		
Cronbach's α	.763	.747		
Total Cronbach's α	.824			
KMO = .847, $\chi^2=811.153$, $p<.001$				

3.3 자기효능감

Table 4는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Min이 제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8].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로 측정도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은 사용되었다 KMO 지수는 .895로 표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chi^2=967.085$,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43.377%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의 자기효능감은 .85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Self-efficacy

Factor	Component		
	1	communality	
Question3	.712	.507	
Question4	.683	.466	
Question6	.678	.459	
Question5	.672	.452	
Self-efficacy	Question1	.665	.442
	Question2	.645	.416
	Question8	.640	.409
	Question9	.635	.403
	Question7	.630	.397
	Question10	.622	.387
	Eigenvalue	4.338	
Variance (%)	43.377		
Cumulative (%)	43.377		
Cronbach's α	.852		
Total Cronbach's α	.852		
KMO = .895, $\chi^2=967.085$, $p<.001$			

3.4 연령에 따른 재미요인의 평균의 차이

Table 5는 연령에 따른 재미요인(즐거움, 사교, 성취감)의 평균차이를 분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이다. 재미요인의 하위 요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즐거움($F=11.821$, $p<.001$)과 사교($F=7.029$, $p<.001$)과 성취감($F=6.460$, $p<.001$) 직무열의(몰두, 헌신)의 평균의 차이 값은 몰두($F=54.729$, $p<.001$), 헌신($F=28.524$, $p<.001$). 하위요인 자기효능감($F=18.904$, $p<.001$)에서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사후분석(Scheffe's)을 실시한 결과 즐거움, 사교, 성취감에서 20대, 30대, 40대보다 50대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몰두와 헌신은 20대, 30대, 40대보다 50대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20대, 30대, 40대보다 50대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재미요인, 직무열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s in average of fun factors, job enthusiasm,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age

Factor	Age (year)	M	N	SD	F	P-value	post-hoc	
Fun factors	E	20s(A)	132	3.6258	.66420	11.821	.000	C, B, A<D
		30s(B)	53	3.5585	.54541			
		40s(C)	72	3.4917	.64125			
		50s or older(D)	61	4.0885	.58484			
	S	20s(A)	132	3.4943	.5832	7.029	.000	B, A, C<D
		30s(B)	53	3.3774	.54071			
		40s(C)	72	3.5938	.75344			
		50s or older(D)	61	3.8689	.60829			
	SE	20s(A)	132	4.0934	.46836	6.460	.000	C, B, A<D
		30s(B)	53	3.9308	.48639			
		40s(C)	72	3.9583	.62783			
		50s or older(D)	61	4.3005	.51173			
Job Engagement	C	20s(A)	132	3.1288	.79146	54.729	.000	A, B, C<D
		30s(B)	53	3.4292	.58090			
		40s(C)	72	3.5694	.60255			
		50s or older(D)	61	4.0984	.60944			
	SI	20s(A)	132	3.8466	.55486	28.524	.000	A, B, C<D
		30s(B)	53	3.9104	.46018			
		40s(C)	72	4.0208	.53033			
		50s or older(D)	61	4.4262	.40141			
Self-efficacy	20s(A)	132	3.4659	.46509	18.904	.000	A, B, C<D	
	30s(B)	53	3.5302	.24852				
	40s(C)	72	3.8806	.51639				
	50s or older(D)	61	4.2820	.40477				

*** $p < .001$,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in average of fun factors according to major, post analysis

classification	Major	M	N	SD	F	P-value	post-hoc	
Fun factors	E	Hair Beauty(A)	172	3.7267	.75548	5.494	.001	C>A>D>B
		Skin Beauty(B)	68	3.4206	.47271			
		Make upC)	40	3.8950	.46185			
		Nail art(D)	38	3.6474	.49742			
	S	Hair Beauty(A)	172	3.6875	.66892	6.507	.000	D<B<C<A
		Skin Beauty(B)	68	3.4853	.54786			
		Make upC)	40	3.5375	.69002			
		Nail art(D)	38	3.2171	.45460			
	SE	Hair Beauty(A)	172	4.1744	.56478	4.888	.000	B<C=D<A
		Skin Beauty(B)	68	3.9069	.49154			
		Make upC)	40	4.0000	.44015			
		Nail art(D)	38	4.0088	.45511			
Job Engagement	C	Hair Beauty(A)	172	3.6410	.81027	8.326	.000	B=D<C<A
		Skin Beauty(B)	68	3.1838	.65594			
		Make upC)	40	3.4500	.61290			
		Nail art(D)	38	3.1842	.70635			
	SI	Hair Beauty(A)	172	4.0988	.62802	5.000	.002	D<B<A=C
		Skin Beauty(B)	68	3.9191	.42197			
		Make upC)	40	4.0063	.39013			
		Nail art(D)	38	3.7566	.40054			
Self-efficacy	Hair Beauty(A)	172	3.8965	.58359	13.955	.000	D<B=C<A	
	Skin Beauty(B)	68	3.5382	.34556				
	Make upC)	40	3.5375	.50520				
	Nail art(D)	38	3.4974	.36204				

** $p < .001$, *** $p < .001$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3.5 전공에 따른 재미요인의 평균의 차이

Table 6은 전공에 따른 재미요인(즐거움, 사교, 성취감)의 평균차이를 분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이다. 재미요인의 하위 요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즐거움($F=5.494, p<.01$)과 사교($F=6.507, p<.001$)과 성취감($F=4.888, p<.001$) 직무열의(몰두, 헌신)의 평균의 차이값은 몰두($F=8.326, p<.001$), 헌신($F=5.000, p<.01$). 하위요인 자기효능감($F=13.955, p<.001$)에서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사후분석(Scheffe's)을 실시한 결과 즐거움은 헤어미용, 네일아트, 피부미용보다 메이크업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사교는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아트보다 헤어미용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성취감은 메이크업, 피부미용보다 헤어미용, 네일아트가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몰두는 피부미용, 네일아트 보다 헤어미용과 메이크업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헌신은 피부미용, 네일아트 보다 메이크업과 헤어미용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보다 헤어미용과 메이크업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3.6 직급에 따른 재미요인, 직무열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의 차이

Table 7은 직급에 따른 재미요인(즐거움, 사교, 성취감)의 평균차이를 분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이다. 재미요인의 하위 요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즐거움($F=2.616, p>.05$)과 사교($F=3.237, p<.05$)과 성취감($F=3.609, p<.05$) 직무열의(몰두, 헌신)의 평균의 차이 값은 몰두($F=17.101, p<.001$), 헌신($F=10.700, p<.001$). 하위요인 자기효능감($F=26.868, p<.001$)에서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사후분석(Scheffe's)을 실시한 결과 즐거움과 사교, 성취감에서 초급, 일반, 실장보다 원장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몰두, 헌신 및 자기효능감은 실장, 일반, 초급보다 원장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열의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열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7. Differences in the average of fun factors, job enthusiasm,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position

Factor	position	M	N	SD	F	P-value	post-hoc	
Fun factors	E	Assistant(A)	76	3.6474	.71395	2.616	.051	C, B, A(D)
		Hair stylist(B)	77	3.6753	.57769			
		Supervisor(C)	38	3.4263	.44399			
		Manger(D)	127	3.7606	.70510			
	S	Assistant(A)	76	3.4638	.62277	3.237	.023	B, A, C(D)
		Hair stylist(B)	77	3.4903	.56551			
		Supervisor(C)	38	3.4868	.47201			
		Manger(D)	127	3.7047	.71784			
	SE	Assistant(A)	76	4.1491	.46633	3.609	.014	C, B, A(D)
		Hair stylist(B)	77	4.0087	.49256			
		Supervisor(C)	38	3.8596	.36044			
		Manger(D)	127	4.1365	.61342			
Job Engagement	C	Assistant(A)	76	3.1414	.81377	17.101	.000	A, B, C(D)
		Hair stylist(B)	77	3.2565	.77372			
		Supervisor(C)	38	3.3882	.55961			
		Manger(D)	127	3.8071	.65933			
	SI	Assistant(A)	76	3.8355	.64492	10.700	.000	A, B, C(D)
		Hair stylist(B)	77	3.9383	.44640			
		Supervisor(C)	38	3.8289	.32934			
		Manger(D)	127	4.2067	.53739			
Self-efficacy	Assistant(A)	76	3.4368	.47745	26.868	.000	A, B, C(D)	
	Hair stylist(B)	77	3.6039	.42933				
	Supervisor(C)	38	3.5947	.25988				
	Manger(D)	127	4.0150	.25977				

* $p<.05$, ** $p<.01$, *** $p<.001$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3.7 재미요인, 직무열의,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재미요인, 직무열의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Table 8과 같다. 재미요인의 헌신($r=.512$), 사교($r=.471$), 몰두($r=.384$), 자기효능감($r=.379$), 성취감($r=.368$) 헌신($r=.424$), 성취감은 자기효능감($r=.4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재미요인의 사교 헌신($r=.424$), 몰두($r=.407$), 자기효능감($r=.390$), 성취감($r=.305$)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r=.401$), 몰두($r=.366$), 헌신($r=.301$)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직무열의 헌신($r=.615$), 자기효능감($r=.612$)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fun factors, job enthusiasm, and self-efficacy

	E	S	SE	C	SI	SEE
E	1					
S	.471**	1				
SE	.368**	.305**	1			
C	.384**	.407**	.366**	1		
SI	.512**	.424**	.301**	.615**	1	
SEE	.379**	.390**	.401**	.612**	.578**	1

** $p<.01$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SEE: Self-efficacy

3.8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의 몰두와 헌신에 미치는 영향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517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187-1.3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이 몰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수(R)은 .560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 .307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30.7%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47.811$,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몰두에 미치는 영향으로 즐거움($\beta=.373$, $t=.6.789$, $p<.001$), 사교($\beta=.219$, $t=4.073$, $p<.001$), 성취감($\beta=.097$, $t=1.914$, $p>.05$)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34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187-1.384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의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수(R).511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 .255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5.5%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7.08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헌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즐거움($\beta=.173$, $t=3.038$, $p<.01$), 사교($\beta=.226$, $t=4.057$, $p<.001$) 성취감($\beta=.269$, $t=5.09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9. The effect of the fun factor on the commitment and commitment to job enthusiasm effect

	B	SE	β	t	sig	T	VIF
C	.346	.310		1.118	.265		
E	.438	.064	.373	6.789	.000	.723	1.384
S	.263	.064	.219	4.073	.000	.758	1.320
SE	.141	.074	.097	1.914	.057	.843	1.187
C	1.656	.229		7.221	.000		
E	.145	.048	.173	3.038	.003	.723	1.384
S	.193	.048	.226	4.057	.000	.758	1.320
SE	.277	.054	.269	5.090	.000	.843	1.187

C: $R=.560$, $adj R^2=.307$, $F=47.811$, $p<.001$, D-W=1.517 SI: $R=.511$, $adj R^2=.255$, $F=37.083$, $p<.001$, D-W=1.934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3.9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433로 2에 가까

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187-1.2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505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 .248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4.8%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5.758,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미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즐거움($\beta=.182, t=3.183, p<.01$), 사교($\beta=.254, t=4.537, p<.001$), 성취감($\beta=.222, t=4.17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0. Influence of fun factors on self-efficacy

	B	SE	β	t	sig	T	VIF
Self- efficacy	C	1.505	.226	6.663	.000		
	E	.149	.047	.182	3.183	.002	.723 1.384
	S	.213	.047	.254	4.537	.000	.758 1.320
	SE	.224	.054	.222	4.178	.000	.843 1.187

$R=.505, \text{adj } R^2=.248, F=35.758, p<.001, D-W=1.433$

C: Constant, T:Tolerancing

E: Enjoyment, S: Social intercourse, SE: Sense of accomplishment

3.10 직무열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763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0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691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 .47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43.551,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무열의의 몰두는($\beta=.392, t=7.856, p<.001$), 헌신은($\beta=.385, t=7.71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1. The effect of job enthusiasm on self-efficacy

	B	SE	β	t	Sig	T	VIF
Self- efficacy	C	1.264	.162	7.814	.000		
	C	.274	.035	.392	7.856	.000	.666 1.502
	SI	.377	.049	.385	7.711	.000	.666 1.502

$R=.691^a, \text{adj } R^2=.474, F=143.551, p<.001, D-W=1.763$

C: Constant, T:Tolerancing

C: Concentration, SI: single devotion

4. 고찰 및 제언

뷰티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의 업무영역과 구성원 속에서 조직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에서 오는 재미요인이 직무열의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관성을 검증하여 재미요인으로 인한 직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연구하였다. 조직체계가 견고하고 높은 조직문화는 구성원들 간에 적응도와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문화를 이룬다[19]. Eu & Kim은 재미요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21]. 학생들의 운동수업재미요인이 수업만족 및 심리적 만족과 건강도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22,23].

Shim은 과거는 일에 대한 인식이 먹고 살기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단순히 생존의 목적보다는 가치 있는 삶 및 자기실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4].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직무의 재미요인 즐거움, 사교, 성취감으로 인한 직무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성취성향이 재미요인[25]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성취목표의 능력발휘와 능력개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성취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욕망을 갖고 운택한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실현해 나간다.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긍정적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6,27,28]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즐거움, 사교, 성취감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참여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자기효능감은 [2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재미요인이 확보되어야하고 재미요인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재미요인의 직접적인 요소가 되며, 또한 신체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심리적인효능감이 증진되어 만족을 도모한다. 청소년들의 오리엔테

이션을 통해 재미있으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교사 및 친구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학교생활 전반적인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직무열의는 유쾌한 시간을 가져올 때, 직무자원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Choi et al(2020)는 블랙 컨슈머로 인한 직무열의와 자기효능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32]. 뷰티종사자들은 블랙 컨슈머로 인해 직무열 및 자아존중감은 상실하게 되고 이직과 자기상실감을 가져와 산업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직무의 효율성과 자기효능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재미요인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을 찾지 못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나오는 재미요인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미래연구에서는 뷰티 현실에 부합한 질문지를 구성개념으로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미래연구에서는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현장에서 재미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뷰티종사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있도록 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여 직무에서 문제점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요인 직무열의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독립변수인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뷰티종사자의 재미요인으로 인해 직무에 몰두하게 되고, 자기성취감을 높이게 만들어 자기효능감에 중요성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O. H. Kwon, Y. S. Sheen (2018). The Effects of Artistic Creativity o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in Beauty Salon Employees.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14(4), 517-529.
- [2] B. N. Kim, D. H. Park, E. J. Yang. (2015). An Analysis of Beauty Service Employee's Aesthetic Lab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1), 33-45.
- [3] M. J. Kim.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smetologists' Perception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smetology Industry Growth potential & Importance of Convergence Industry and Importance of personal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20(3), 159-178.
- [4] J. S. Kim. (2016). The Relation among the sport Amusement Factor, Leisure Satisfaction and Exercise Persist of participants in Tennis: A Holistic Perspective.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20(4), 97-115.
- [5] H. Y. Chio & Y. C. Lee. (2016). *The Effects of Enjoyment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nse of Freedo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Stay-at-home Mother Dance Sport Participa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6] I. O. Park & C. S. Youn. (2019). Verification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Concept of Jaemi.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10(5), 101-116.
- [7] J. Y. Jong, O. R. Kwon, S. B. Kang. (2013). The Effects of the Fun Factor and Immersion of Marine Sports on Leisure Satisfaction.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7(1), 101-111.
- [8] S. S. Shin. (2015). Effects of Single Women's Enjoyments on Their Leisure Commitment, Self-Realization, and Job Satisfaction. *Ewha Woman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19(2), 365-387.
- [9] S. H. Park & Y. H. Kang. (2017). The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on Work Engagement in the Service busines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39(3), 117-145.
- [10] S. N. Hong. (2019). Effect of Beauty Industry Work' Occupation Characteristics on Their Job

- Satisfaction an Intention. *The Korean Beauty Art Management Association*, 13(4), 23-40.
- [11] O. S. Kim. (2020). Effect of Flipped Learning Using Media Convergence in Practice Education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Society for SMB*, 10(6), 49-58.
- [12] I. S. Jung. (2018).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Convergence Society for SMB*, 8(5), 51-58.
- [13] C. H. Im. (2008). The Effects of Negative Affectivity on Collective Self-Efficacy :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Person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Korean Association of Industrial Business Administration*, 23(1), 75-100.
- [14] J. Hur & A. J. Kim. (2010). Effect of Self-efficacy and Yangsaeng on Quality of Life in Hemodialysis Patients. *Kyung Hee University*, 6(1), 76-83.
- [15] K. H. Kim. (2020).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MX i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gagement of Supervisors in Beauty Service Industries*. Doctoral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 [16] H. Y. Choi.(2015). *The Effects of Enjoyment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nse of Freedo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stay-at-home Mother Dance Sport Participa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17] K. H. Kim. (2020).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MX i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gagement of Supervisors in Beauty Service Industries*. Doctoral disse Seokyeong University. Seoul.
- [18] K. H. Min. (2017). *Effects of Self-Efficiency of Beauty Workers on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Job Satisfaction -For graduates of Beauty High School-*. Master's thesis. Sungsim Women's University, Seoul.
- [19] S. U. Yoon. (2020).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motional Labor of Dental Workers Impact of Convergence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 10(1), 187-194.
- [20] Y. S. Eu, J. M, Kim. (2014). The Effects of Fun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Employees Involved in Food Service Industr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7(6), 141-159.
- [21] G. H. Min.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beauty worke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 for high school graduates*.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22] B. D. Oh. (2014). Relationship of University of Education Student's Physical Education Class's Fun Factor and Class Satisfac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9(2), 93-104.
- [23] S. H. Noh, S. B. Ju, J. H. Choo. (2016).The Effect of a Enjoyment Factor of Required Squash Class in the University on the Class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14(2), 107-118.
- [24] S . S. Shim. (2015). Effects of Single Women's Enjoyments on Their Leisure Commitment, Self-Realization, and Job Satisfaction PDF ic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9(2), 365-387.
- [25] K. B. Kwon. I. S. Yeo. S/H. Choi. (2013).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enjoyment factor and self-actualization in middle, high school student of taekwondo training.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5(2), 17-28.
- [26] H. M. Kang. H. j. Choi. S.H. Choi. (2019)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joyment factor, physic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Participation in Survival Swimming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28(6), 123-133.
- [27] C. H. Lee. (2019). Effect of Physical Enjoyment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of Sports Scienc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17(2), 689-697.
- [28] O. H. Ok. (2019). A Study on Influence of Fun Factorsin Pilates Reformer Exerci Participation. Korean se on Self-Efficacy and Adherence Intention Index.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8(4), 209-224.
- [29] Y. J. Han, H. W. Kang, M. H. Lee. (2014). The Verification for Relation between Physic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ccording to Amusement Factor in teenagers who participated in Orienteering with family - Focusing on family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5(5), 221-232
- [30] J. H. Lee, J. T. Kim, Y. S. Jung. (2016). Relationship among Enjoyment Factors, Physical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Jump Rope Club.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5(3), 81-93.

- [31] D. W. Koo, S. H. Lee, J. Y. Kim. (2017). The effects of hotel manager's fun leadership on job engagement, self-efficacy, innovative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of hotel employe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19(2), 37-56.
- [32] M. S. Choi, K. B. Jung, Y. j. Lee. (2020). The Effect of Perception of Black Consumer Behavior on the Job Enthusiasm and Self-esteem of Beauty Service Workers. *Asian Society of Beauty & Cosmetology*, 18(2), 183-193.

강 세 령(Se-Ryung Kang)

[정회원]



- 2016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향장 에스테틱 (석사)
- 2018년 8월 ~ 현재 : 동덕여자대 학교 보건향장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향장에스테틱, 보건
- E-Mail: bestschool123@naver.com

이 영 조(Young-Jo Lee)

[정회원]



- 2017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미용 보건학과(석사)
- 2020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 향장학과(박사)
- 2020년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보건, 통계
- E-Mail: leewha88@naver.com